

종합

# 기아차 순익 2조 ‘어닝 서프라이즈’

## 국내외서 140만대 판매...전년비 55% 증가

## 매출·영업이익·글로벌 점유율도 사상 최대

기아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당기순이익 2조원을 돌파했다. 또 매출, 영업이익, 글로벌 점유율도 모두 사상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기아차는 28일 서울 여의도 우리투자증권에서 기업설명회(IR)를 열고 당기순이익이 2009년보다 55.4% 증가한 2조2543억원(이상 국내공장 기준)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국내외에서 140만293대를 팔아 매출 23조2614억원을, 영업이익은 1조680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26.3%, 46.8%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글로벌 점유율도 2.9%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판매대수는 내수에서 전년보다 17.5%, 수출은 25.5% 증가해 전체적으로 22.6%의 증가율을 보였다.

기아차는 지난해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지속적인 신차 출시에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판매까지 늘면서 수익성이 높아진데다 해외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어 ‘깜짝 실적(어닝서프라이즈)’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신흥 지역 등 전세계 모든 시장에서 수요 증가를 크게 상회하는 판매성장률을 기록했다.

내수시장에서 48만3000대, 미국 시장에서 35만6000대를 팔아 전년 대비 각각 17.5%, 18.7% 늘어났으며, 중국(38.0%)과 신흥시장(44.3%)은 물론 유럽(6.6%)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기아차의 이같은 실적에는 광주공장의 역할이 컸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달 연속 월별 생산 최고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사상 처음으로 연간 생산 40만대를 돌파했다.

을 들어 지난 23일까지 광주공장의 야심작인 스포티지R(구 스포티지 포함)을 10만7672대, 소울 15만5484대 등을 모두 40만1043대를 생산하면서 기아차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견인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기아차 ‘디자인 경영’의 상징인 소울이 북미·유럽 등 해외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스포티지R도 세계적인 권위의 ‘2011 iF 디자인상’을 받는 등 수상실적이 잇따르면서 국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을 위해 내수 50만대, 수출 193만대(국내 생산 100만대, 해외생산 93만대) 등 작년 대비 14.1% 증가한 243만대를 글로벌 판매 목표로 제시했다. 해외 판매량은 미국 42만대를 포함해 유럽 28만5000대, 중국 43만대, 기타 71만대 등이다.

이와함께 기아차는 신형 모닝과 K5 하이브리드, 모닝 파생차, 프라이드 후속 모델 등 4종의 신차 출시 계획을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민주당과 전남도는 28일 오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손학규 대표와 박지민 원내대표, 정세균·박주선·김영춘 최고위원, 박준영 전남도지사, 이개호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전남도 각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고 전남도의 주요 현안사업과 국비 예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도 제공)

# 손학규 “DJ 정신계승 정권교체 이루겠다”

## 박지사 “여수박람회·F1 등 21개 사업 적극 지원을”

### 민주당-전남도 정책협의회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28일 전남도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낙후된 호남 발전을 위한 당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손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호남과 전남에 국가적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제대로 그 빚을 갚고 있는가 자성한다”면서 “이곳이 경제적으로 많이 낙후돼 있고 인구는 줄고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꼭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여수 엑스포, F1 그랑프리, 각종 SOC(사회간접자본) 구축은 민주당이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며 “당 차원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반드시 확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손 대표는 이어 “전남이 발전해 인구가 다시 유입되고 전남도민들이 정신·물질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남정신, ‘감동중 정신’이 민

주주의를 꽃피우고 서민과 중산층이 허리를 펴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내년 정권교체를 통해 더욱 힘차게 전개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전남도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지민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단합해 정권교체를 이룰 때 전남도의 모든 숙원이 해결될 수 있다”며 변함없는 지지를 호소했고, 최근 북한이 남북 국회회담을 제의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약간 부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체성이 남북교류협력과 평화에 있기 때문에 남북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전국에서 산업이 최고로 낙후된 전남은 ‘형남’마저 안 게서 더욱 출다”라고 반(反) 한나라당 정서를 자극한 뒤 “전남의 애로 사항을 듣고 민주당 차원에서 당력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또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0·4 선언과 총리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남북 국회회담을 적극적으로

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남북 국회회담 대표단을 여야 동수로 즉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춘 최고위원은 “전국에서 고령비율이 가장 높아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금액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시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만약 올해와 내년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 민주당이 집권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정권교체를 강조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전남도의 현안사업인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F1코리아 그랑프리 등 21개 사업에 6976억원의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요청했다.

전남도가 이날 건의한 주요 현안사업은 ▲여수엑스포 주요 SOC 예산 5065억원 ▲F1대회 경주장 추가 건설비 577억 원 ▲F1경주장 주변 모터 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국립 심혈관센터 유치 ▲고흥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간척지 양도양수 조지 해결 등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순천 보선 벌써부터 후끈

### 허선씨 공식출마 선언... 10여명 거론

서갑민 민주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오는 4월 27일 치러질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첫 공식출마 선언자가 나오는 등 선거 판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허 선(59) 전 공정거래위 사무처장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4월 보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낡고 품위를 잃어버린 순천의 정치판을 투명하게 개혁하겠다”며 “여수·광양·순천 3도시 통합을 추구하며, 순천을 동부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순천 보선에 출마가 거론되는 10여 명의 인사 가운데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는 허 전 처장이 처음이다. 다른 출마 예상자로는 조순웅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 허신행 전 농림부 장관, 정순균 전 국정홍보처장, 박상철 경계대 교수, 신택호 변호사, 구희승 변호사, 이광수 전 민주당 대변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 후보는 이미 순천에 사무실을 내고 얼굴 알리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출마 예상자로 지목되는 노관규 현 순천시장은 선거일 120일 전 단체장직 사퇴 시한 규정에 걸려 현재는 출마가 봉쇄된 상태지만, 헌법소원 제기 등을 통한 출마 강행도 있을 수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시설

### 호남고속철 ‘빨대효과’ 철저히 대비해야

오는 2014년 호남고속철도 1단계(용산~광주) 완공을 앞두고 KTX가 불러오는 부정적 효과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호남고속철이 완공될 경우 서울~광주 간 운행시간이 1시간 이상 대폭 단축돼 의료, 쇼핑, 교육, 유통 등이 서울로 쏠리는 ‘빨대 현상’으로 지역 상권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서울 간 거리가 줄어들면 광주·전남지역의 사람과 돈이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수도권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빨대 효과’는 KTX 2단계(서울~대구~부산) 구간 개통 후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대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대구 시민의 수도권 의료서비스 이용은 KTX 개통 후 무려 83%나 늘었다고 한다. 또한 대구·경북지역 사람들의 수도권 소비 규모가 연간 2천500억 원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다. 수도권 접근 개선으로 품질과 시설, 규모에서 월등한 서울의 서비스 산업이 대구·경북지역 고객을 흡수해 지방 상권이 쇠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호남고속철이 개통될 경우 인구 및 산업기반이 대구보다 취약한 광주·전남은 더 심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지금부터 대구를 반면교사로 삼아 KTX의 부정적 효과를 차단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종합전략을 마련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당장 교육·문화·의료, 유통 등 서비스 산업의 질을 높이고 지역 상권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KTX시대에 대응해 나름대로 특화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광주·전남은 점점그만 남을 수 있다. 3년은 결코 긴 세월이 아니다.

### 가격거품·쓰레기 양산하는 선물 ‘과대포장’

주책가와 아파트단지가 설 선물 포장용으로 쓰인 종이상자, 스티로폼 등 각종 쓰레기로 넘쳐 난다고 한다.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외지인들이 고향이나 지인을 찾기 보다는 선물로 대신하고 있어 유래 없이 많은 쓰레기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분리자업을 하지 않아 수거업체와 아파트 관계자 등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용역업체 역시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해 일부 지역의 경우 하루 한 차례씩 수거하던 것을 이틀이 지난 뒤에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과도한 포장재는 선물 자체의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구매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불필요하게 크고 화려한 포장에 덧붙여져 고가에 판매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술은 흔한 일이 된지 이미 오래다. 과대 포장은 선

물을 받는 사람에게도 짐이 될 뿐 아니라 이를 꾸미기 위한 노력과 비용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럼에도 포장은 더 화려해지고 늘어나는 추세다. 선물이나만큼 치장이 그럴싸해야 한다는 일반인의 인식을 백번 이해하더라도 과포장이 지나친 게 사실이다. 소비자들이 포장에 호감을 갖고 비싼 제품을 선호하다 보니 상술이 이를 이용하는 것 아닌가.

선물이란, 직접 구입해서 쓰는 알뜰하고 실속이 있어야 한다. 비싸고 겉치레만 화려하다면 선물의 의미도 퇴색되는 일이다. 허례허식으로 인한 폐해나 심각한 환경문제를 고려해 볼 때 무엇보다 소비자의 각성이 절실하다.

관계당국도 포장 비용이 제품 가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되 이를 어길 경우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송원학원→남구, 무등경기장 주차장 일부→북구

#### 광주시 구간경계조정분과위

광주시 남구와 서구에 걸쳐 있는 송원학원이 남구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구간경계조정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8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송원·중·고 및 대학이 면적 기준으로 5분의 4는 남구 송원동에, 5분의 1은 서구 송원동에 자리 잡고 있어 학교 전체를 남구로 편입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또 행정구역상 서구로 돼 있는 무등경기장 주차장 일부를 북구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송원학원의 경우 남구와 서구 그리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조정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며, 무등경

기장 주차장 역시 북구와 서구의 의견을 물어 북구 편입을 결정키로 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하남로를 경계로 한 북구 동림동과 운암동 일부지역을 서구로 편입시키는 문제와, 북구 풍향동과 두암3동 또는 풍향동과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는 문제는 위원들 간의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시급성 등을 감안해 올 상반기에 구간경계지역을 최소화해 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내년 12월까지 광주시의 중기적인 발전 전략을 고려해 2단계 조정을 하기로 원칙을 정했다”고 말했다. /\*홍경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대검 차장검사 박용석

### 서울중앙지검장 한상대

### 고검장급 전보인사

법무부는 28일 박용석(사법연수원 13기·경북) 법무연수원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한상대(13기·서울) 서울고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등 고검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차동민(13기·경기) 대검 차장은 서울고검장으로, 노환균(14기·경북) 중앙지검장은 대구고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또

황교안(13기·서울) 대구고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조근호(13기·부산) 부산고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됐다.

황희철(13기·광주) 법무부 차관과 안창호(14기·대전) 광주고검장, 채동욱(14기·서울) 대전고검장은 유임됐다.

지난해 7월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고검장급 9명이 모두 유임됐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9명 가운데 6명이 자리를 바꿨다.

한편, 한화 및 태광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고 무리한 수사’라는 여론의 압박을 받은 남기춘(15기·서울) 서울서부지검장은 이날 법무부에서 사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錫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민화총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체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건팀 2200-693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빛의만평** - 김중두

차라리 슬직해서 좋다

**‘슬로시티의 힘’** 연안 여객선 이용객 감소 불구 완도~청산도 31% ↑ 전국 최고

경기침체와 천안함 사태 등의 여파로 전국의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슬로시티(Slow city)인 완도 청산도로 가는 이용객은 급증세를 보여 전국적인 관광병소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전년대비 4% 줄어든 1480만8000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2002년부터 8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9년 만인 작년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경기회복에 따른 해외여행 증가로 국내 여행객이 줄고,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해 5도 여행객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목포 증도대교와 부산 거가대교 등 육지와

도시를 연결하는 연륙교가 개통되고 해상의 기상이 좋지 않았던 것도 원인으로 파악됐다.

반면 슬로시티 청산도에 대한 관광수요가 급증하면서 청산도~완도 간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전년 대비 무려 31%가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또 지난 7월 3일 취항한 장흥 노선도~제주 성산포 항로 역시 단기간에 26만 여명의 여객 수요를 만들어냈으며, 완도~제주 간, 여수~제주 간 항로 역시 소속이나마 여객 수요가 증가했다.

반면, 목포 증도대교가 지난해 3월 30일 개통하면서 사육도~병풍도는 이용객이 80%나 줄었다.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울릉도와 홍도의 수송실적도 각각 8%, 7% 감소했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